

영원한
그대의
길을
따라
님,

● 정 화 영

*정화영님은 경북 예천에서 출생하여 대륜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경북대 정외과에 입학하였다. 68년 경북대 이념서클인 정사회에 가입한 후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 제적되었다. 1973년 복교한 후 73년 11·5 경북대 반유신투쟁을 주도하였으며, 1974년 민청학련 사건으로 구속되어 15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재구속되어 6년간 복역하였다. 현재 부평에서 한겨레문고를 경영하고 있다.

고속버스는 김천을 지나 추풍령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75년 4월 9일 오후 4시 경 라디오에서 뉴스가 흘러 나왔다. 인혁당 선배들의 사형이 집행되었다는 것이다. 서도원, 도예종, 하재완, 이수병, 김용원, 우홍선, 송상진, 여정남의 이름이 나의 귓전을 때렸다. 나는 옆에 같이 타고 가던 임규영에게 동행하고 있는 경찰이 안들리게 떨리는 목소리로 사형집행 뉴스를 전했다.

나는 숨을 죽였다. 가슴이 꽉 막혔다. 온몸이 떨렸다. 머리털이 뻗었다. 뼈가 으스스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지금도 사형당한 인혁당 선배들을 생각하면 그 때의 느낌이 되살아나서 소름이 끼치고 머리털이 쭈뼛 서고 서러워 눈물이 난다.

삼선개헌 반대투쟁

1967년 내가 경북대에 입학했던 그 해는 6·8부정선거 다시 하라는 학생 데모가 전국을 뒤흔들고 있었다. 나는 그해 6·8부정선거 규탄시위에 열심히 참여했다. 교내 시위에 스크림을 짜고 앞장서 싸웠다.

1968년 나는 경북대 토론 서클인 정사회(正思會)에 참여하게 되었다. 정사회 활동을 통해 사회를 이해하고 비판하게 되었다. 각종 토론회에 참여하면서, 때로는 졸업한 선배들과 함께 한잔 하면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높여 나갔다.

1969년 박정희는 연초부터 개헌 논의를 흘리기 시작했다. 3선개헌을 하겠다는 것이 6월 경 확인되었다. 이렇게 되자 3선개

헌 반대투쟁이 전국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다. 경북대는 정사회가 중심이 되고 총학생회가 전면에 나서 싸웠다. 진원규 총학생회장을 중심으로 열성적으로 투쟁했다. 7월투쟁으로 진원규 총학생회장, 유정선 정사회 회장이 제적되고, 나는 자퇴가 권고되었다. 그뒤 제적되었다. 홍윤순, 임구호 등 많은 학생이 무기정학, 유기정학을 당했다.

1969년 여름방학 중에 2학기 투쟁을 위해 여러 방향으로 준비를 해갔다. 그 당시 졸업한 문재현 선배도 여정남 선배와 같이 뒤에서 열심히 도왔다. 8월 말 나는 여정남 선배와 같이 진원규 총학생회장이 피신해 있는 동촌비행장 뒤편 마을에 갔다. 피신해 있는 집에서 콩보리밥을 진원규 회장과 함께 먹었다. 셋이서 마을 앞 저수지에 가서 수영을 하였다. 진원규 회장 등의 때를 밀었더니 기름기라고는 하나도 없었다. 뽕송뽕송할 뿐이었다. 피신하면서 보리밥만 먹어서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니 안쓰러웠다.

그 당시 경북대 3선개헌 반대투쟁은 전국에서도 유별났다. 박정희의 고향에서 3선개헌을 더욱 더 반대하고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기까지 하였다. 늘 2천여 명의 학생들이 격렬하게 3선개헌 반대투쟁에 적극 참가하였다. 때로는 학교운동장에 모여 좌우로 갈라 밀쳐 싸우는 연습도 하였다. 각목으로 연습도 하였다. 여학생은 행주치마를 두르고 와서 돌을 나르는 연습을 하였다. 가두시위 때는 여학생이 날라다 주는 돌로 투석전을 벌였다.

9월 나는 입대영장을 받지 않고 강제입영하게 되었다. 3선개헌 반대투쟁으로 정사회는 해체되었다. 그뒤 정진회로 거듭 태어났다. 군대에서 휴가나왔을 때면 나는 여정남 선배와 임구호 등

과 같이 어울려 지냈다.

11·5 유신반대투쟁

72년 8월 제대를 하고 다시 복학하려고 학교에 갔으나 복학이 좀처럼 되지 않았다. 곧 10월 유신 쿠데타가 일어나 학교는 완전히 폐쇄되었다. 나는 당시 군대에서 결핵을 얻어 나왔다. 중등증 초기였다. 폐의 5분의 2가 동공이 되어 있었다. 각혈이 가끔씩 나왔다. 고향 예천으로 돌아가 요양하기로 하였다.

73년 봄 복학이 결정되었다. 박정희 정권은 유신 쿠데타가 성공했다고 자신한 모양이었다. 강압적 유신헌법은 사회를 숨죽이게 했다. 이제 학생운동은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다고 큰소리쳤다. 나는 복학 후 정진회의 후신인 한국풍토연구회 모임이나 토론회에 참여하였다. 회원으로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선배로서 후배들과 어울려 토론도 하고 관계도 맺었다.

임규영, 황철식, 이광하 등 후배들과 관계를 가졌다. 73년 봄은 적막강산이었다. 민주주의를 말살한 유신헌법이 기본적 인간의 권리를 억누르는 것을 알지만 감히 누가 나설 수 있는 엄두를 못내었다. 만나서 이야기하는 것도 상당히 제한되어 있었다.

73년 9월 말 추석이였다. 나는 고향 예천에서 소식을 들었다. 10월 2일 서울대에서 학생데모가 있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를 확립하라는 것이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구나 생각했다.

대구로 돌아와 곧 임규영을 만났다. 서울대 시위에 대해 이

야기했다. 우리도 반유신투쟁을 준비해야 되지 않느냐고 의사타진을 하였다. 임규영은 동의했다. 임규영, 황철식 등과 만나 준비해 나가기로 했다. 임구호를 만나 진행되어가는 얘기도 하였다. 여정남 선배를 만나 여러 가지로 상의하였다. 임구호와 함께 피신할 수 있는 곳도 다녀왔다. 경산 하양에 있는 친구의 집이었다. 그 친구는 사과밭을 하고 있었다.

10월 하순 경 우리는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전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규모 싸움을 여러 차례 하기로 전술을 세웠다. D-day는 10월 30일. 1차 투쟁은 담력과 결단력이 있는 강기룡을 중심으로 하기로 했다. 이강철을 만나 지원금을 얻어 쓰기도 했다. 당시 이강철은 대구백화점 9층에서 큰 탁구장을 운영하고 있어 여유가 있었다.

10월 30일 1차투쟁은 경험부족과 여건의 미성숙, 강압적 현실 등으로 기대했던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우리는 다시 회합하여 1차투쟁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하였다. 다시 준비하기로 했다. 유신 하의 강압적 현실에선 소규모 투쟁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우리 모두가 나서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몇 선으로 정해 투쟁하려던 방식을 폐기했다. 총력전을 펼치기로 했다. 내가 전면에서 책임지기로 했다. 여정남 선배와 만나 합의했다. 보통 데모는 오후 2시에 하는 것이 상례였다. 우리는 적의 허를 찌르기 위해 월요일로 결정했다. 시간도 오전 10시. 73년 11월 5일.

나는 준비에 바빴다. 대구 서문시장에 가서 등사기를 샀다. 학교 주위에서 사지 않았다. 돈은 사촌에게 빌렸다. 여정남 선배

로부터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을 넘겨받았다. 이 선언문은 서도원 선생이 작성한 것이었다. 나는 황철식에게 등사할 장소를 물색하라고 했다. 황철식은 반야월에 있는 친구 방을 이틀간 빌린다고 했다. 글씨를 쓸 사람을 강동균으로 정했다. 강동균은 한국 풍토연구회 회원으로서 글씨체가 좋다고 하였다. 강동균은 대구 한일극장 뒷골목에서 어머니가 장사를 하는데 한풍회 회원이랑 여러 번 같이 가본 적도 있고, 강동균도 잘 알아서 같이 하기로 하였다. 강동균, 황철식, 나 셋이서 같이 반야월에 갔다. 강동균이 '가리방'을 긁었다. 글씨가 또렷하고 글자체가 좋았다. 셋이서 등사 잉크를 손에 묻혀가며 2천 장을 등사했다.

시위에 사용할 핸드마이크를 구하기 위해 시내 한일극장 옆 전파사에 갔다. 마이크를 빌리는데 보증을 세우라는 것이었다. 그 당시만 해도 전화가 별로 없었다. 유정선 집에 전화를 했다. 보증을 선 것이다. 나는 11월 5일 투쟁계획을 유정선에 전했다. 또 이강철에게도 거사 시간과 일정을 소상히 알려주었다. 이강철은 공대 신유균과 함께 참여하여 11월 5일 거사를 성공할 수 있게 하였으나, 이강철, 신유균, 최문수, 강기룡과 함께 구속되어 고초를 겪었다.

11월 5일, 드디어 그 날이 왔다. 아침 일찍 등사된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을 나눠가지고 약속장소로 갔다. 엄혹한 유신 치하의 폭압적 상황을 부수기 위해 나는 하나의 전술을 구사하기로 했다. 유신체제를 긍정적 논조로 다루어 학생들로부터 질타의 대상이었던 경북대학교 학보사의 학보보급소를 불지르기로 했다. 보급소는 데모 장소와 가까운 경북대 로타리에 있었다. 나는 휘

발유를 사서 한풍회 회원에게 주면서 로타리 옆 학생회관 숲에서 기다리라고 하였다.

1교시가 끝났다. 10시다. 교양학부를 비롯하여 도서관, 각 단과대학으로 흩어져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을 배포하였다. 로타리로 모이자고 외쳤다. 유신헌법 이후 강압통치로 시위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시위에 대한 두려움과 박정희의 폭압에 대한 공포감이 사회를 휘감고 있을 때였다. 어용교수들이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면서 데모를 저지하느라고 뛰어다녔다. 교수들은 자기 과 학생이 데모에 참여 못하게 막느라고 야단법석이었다.

나는 먼저 경북대 로타리 버드나무 아래 있던 학보보급소에 휘발유를 뿌렸다. 불길은 하늘을 뚫고 타올랐다. 타타 탁탁. 수양버들 타는 소리가 로타리를 진동했다. 검은 연기가 솟았다. 불꽃이 치솟았다. 학교가 슬렁이기 시작했다. 학생들은 흥분해서 모여들기 시작했다. 나는 반독재민주구국선언문을 큰소리로 읽었다. 그 순간 “정화영, 너 또 데모하나!” 교수들의 앙칼진 목소리가 들렸다.

우리는 스크림을 짰다. 후문을 향해 도청을 향해 나아가기 시작했다. 유신헌법 철폐하고 민주헌법 제정하라! 중앙정보부를 해체하라! 우리의 구호가 학내를 진동했다. 시위행진이 진행될수록 시위대는 늘어갔다. 어용교수들은 데모를 막기 위해 혈안이 되었다. 이 날 나는 시위를 성공시키기 위해, 아니 성공시켜야 하기 때문에 온힘을 다 썼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 뛰어다녔다. 교수와 싸우라 진두지휘하라 동분서주했다. 건장한 교수들이 나와 시위대 앞을 막으려고 했다.

나는 논개가 적장을 꺼안듯 교수를 꼭 껴안았다. 그리고 3m 아래 도랑으로 함께 떨어지기로 하고 밀어부쳤다. 그렇게 할 때마다 교수들은 다치지 않으려고 피해나갔다. 대여섯 명을 이런 식으로 처리하고 나니 교수들이 물러서기 시작했다. 앞에 나서서 막는 교수가 없어졌다. 따라만 오고 있었다. 성공, 성공이었다.

우리는 구호를 외치며 전진했다. 가두시위를 시작했다. 경북도청 앞 도청교까지 나아갔다. 도청교에서 경찰과 대치했다. 경찰이 이제야 알고 출동한 것이다. “유신헌법 철폐하라”고 구호를 외쳤다. 도청교 앞 시민들이 가던 길을 멈추고 구경했다.

“정화영 잡아라!” 경찰이 외쳤다. 경찰이 내가 있는 쪽으로 달려오고 있었다. 전진할 수가 없었다. 퇴로를 차단하고 있었다. 순간 퇴로를 생각했으나 갈 길이 없었다. 마침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택시를 세워 급히 탔다. 택시기사는 나를 태우고 달렸다. 경찰은 차를 타고 택시를 따라오고 있었다. 경적을 울리면서 따라왔다. 경대교를 지나 방천 독으로 달렸다. 더 이상 갈 수 없다고 생각한 나는 택시기사에게 급해서 돈을 줄 수 없다고 하며 미안하다고 했다. 택시기사가 나를 내려줬다. 고마운 택시기사.

나는 방천 독을 뛰어 내렸다. 수성천을 건넜다. 수성천 물이 무릎 위까지 차왔다. 강물을 건너니 숨이 몹시 가빴다. 결핵을 앓고 있어서 더욱 숨이 찼다. 강물을 다 건넌 뒤 힐끗 돌아보았다. 나를 따라오는 형사는 물 한 가운데 있었다. 걱정없다고 생각했다. 잡힐 것 같지 않았다. 방천 독을 올라 골목으로 사라졌다. 이 골목 저 골목 계속 꺾어 가며 빠른 걸음으로 달아났다. 바지는 반이 물에 젖어있고 신발에는 물이 가득하였다. 영신고등학교 옆에

가서 신발의 물을 털어 신고 골목으로 골목으로만 갔다.

수성들 황금동 뒷산 꼭대기에 올라갔다. 옷과 신발이 젖어 있어서 갈 수가 없었다. 양말, 신발, 옷을 말린 뒤 피신처로 갔다. 하양 사과밭에서 한 달 반 동안 사과 꼭지를 따면서 보냈다. 나는 맛있는 사과 선택법을 배웠다. 사과밭 쥐도 맛있는 사과만 먹는다.

73년 11월, 12월 임구호가 하양을 몇 번 다녀갔다. 12월 말 경 임구호가 안전하다고 하여 학교로 돌아왔다. 73년 12월 말 경, 11·5 투쟁대열에 참여했던 선후배가 함께 송년모임을 가졌다. 지난 일을 얘기하며 74년투쟁을 준비하기로 했다.

11·5 반유신투쟁은 유신쿠데타 이후 지방에서 가두시위를 전국적으로 처음한 일이었다. 「대구매일신문」과 「동아일보」에 기사화된 것도 처음이었다. 11월 5일 경북대의 반유신투쟁이 전국 대학 데모의 도화선이 되었다. 여정남 선배는 내가 피신한 곳을 몰라 많이 찾았던 모양이었다. 피신한 곳은 임구호만 알고 있었다.

긴급조치시대

서도원, 하재완 선생 등 소위 인혁계 선생들을 나는 임구호와 함께 대구백화점 신관 7층에서 자주 만났다. 민주수호경북협의회 사무실이 있는 곳이었다. 선생들과 식사도 같이 하고 함께 저녁에 술도 마셨다. 이재문 선생도 계셨고, 이재문 선생 부인도 같이 할 때가 있었다. 부인은 여걸이셨다. 임구호와 함께 서도원 선생이 침술하시던 한약방에도 같이 가곤 했다. 서도원 선생은 신경통 침술 치료에 일가견이 있는 무허가 한의사였다.

74년 1월 초, 나는 여정남 선배와 함께 성당못 뒤 하재완 선생 댁으로 갔다. 하재완 선생은 사모님과 딸이 여럿 있었다. 그 당시 막내로 사내아이가 있었는데 고추를 내놓고 있었다. 집에서 메추리를 사육하고 계셨다. 하선생은 나에게 11월 5일 투쟁을 잘 했다고 격려해 주셨다. 한잔 하라고 메추리 서너 마리를 정성들여 잡아 주셨다. 여정남 선배와 나는 이강철을 만나 이강철 형님이 경영하던, 동산기독병원 아래 음식점으로 가서 메추리를 구워 맛있게 한잔 하였다.

여정남 선배는 서울로 간다고 했다. 서울 가서 일본어학원을 다닌다고 했다. 나는 임규영, 황철식과 만나 3월투쟁을 준비하기로 했다. 그 때 유진숙이라는 여학생이 사범대에서 열심히 한다고 거론됐다. 73년 12월투쟁에서 눈에 띄는 역할을 많이 했다고 하였다. 굉장히 열성적이고 역량이 있다고 했다. 유진숙은 사범대학 학생회 여학생부장이었다.

임규영과 황철식은 유진숙을 형이 만나서 우리 쪽으로 오도록 설득해 달라고 하였다. 우리 쪽으로 오도록 설득하기가 만만찮다고 하였다. 황철식은 유진숙에 대해 소상히 얘기해 줬다. 나는 유진숙을 그녀의 집이 있는 남문시장 대도극장 경북여고 주위에서 자주 만났다. 처음에는 인간적인 문제부터 얘기를 시작한 것 같다. 우리의 신뢰가 깊어가는 과정마다 하나씩 하나씩 토론을 했다.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일본에서 강제로 납치해온 폭압성에 대해 토론했다.

74년 1월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되었다. 개헌청원서명운동도 전개되었다. 긴급조치 위반으로 구속되는 민주인사가 속출했다.

분위기가 험악해져 갔다. 나는 유진숙과 다방에서, 빵집에서, 길을 걸으면서 유신헌법의 폭압성에 대해 대화를 나누었다. 코가 오뚝하고 날렵한 유진숙은 의외로 사물에 대한 인식이 빨랐다. 유신헌법 반대투쟁에 적극성을 띠게 되었다. 나는 만족했다. 대단히 열성적이라고. 여학생 문제는 유진숙과 상의하기로 했다.

유진숙은 효성여대 총학생회 간부인 한상옥을 소개해 주었다. 유진숙, 한상옥, 나 셋이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한상옥은 효성여대 기숙사에 있었다. 한상옥은 기숙사 전화번호를 나에게 알려줬다. 한상옥은 차분하고 세련된 여학생이었다. 효성여대 근처 수성못 주위를 거닐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누었다.

교양학부에서 열성적이었던 한풍회 회원 정영순도 내가 만나기로 되었다. 정영순은 능력이 있다고 평가되었다. 나는 정영순에게 전화를 하여 만났다. 시내에서, 동촌에서 만나 많은 대화를 나눴다. 유신반대 투쟁에 나설 것을 설득했으나 잘 따라오지 않았다. 유신반대 투쟁이란 자기를 버리는 것이다. 엄혹한 상황에서 자기를 버리고 대의를 따르는 것이 쉽겠는가!

당시는 앞으로의 투쟁을 놓고 여러 가지 견해가 나타났다. 탄압이 엄혹하니 후퇴해야 한다고 하는 주장도 있었고, 전국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투쟁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나는 당시 학생으로서 당사자였다. 싸움이라는 것은, 폭압적 권력에 대한 싸움은 싸우면서 깨지고, 깨지면서 조직이 확대 발전해 가는 것이 아니겠는가, 조직화된 대중조직이 있다든가, 전위조직이 있어 전국적 공감대가 확실하다면 전국적 동시투쟁도 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이 미약한 단계에선 가능한 것부터 한 단계 한 단계

싸워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나는 이 문제로 임구호와 의견의 차이가 있었다. 현실인식에 대한 차이 등 이러한 상황이 결국 여정남 선배와 이재문 선배의 격돌을 불러왔다. 여정남 선배가 목침으로 이재문 선생을 쳐서 이마가 깨졌었다. 이재문 선생 염소목장에서 일이었다. 여정남 선배는 인혁당 선배들로부터 많은 비판을 듣게 됐다. 견해의 차이에 대한 논쟁은 좋지만 폭력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이었다.

여정남

그는 경북대 투쟁의 선봉이었다. 대부였다. 후리후리한 키(184cm), 빛나는 부리부리한 눈, 활기찬 발걸음, 힘있는 목소리, 불굴의 열정, 그가 가는 곳엔 늘 후배가 함께 했다. 일이 벌어지면 끊임없이 돌진해 나가는, 그리고 차곡차곡 챙겨가는 투쟁의 선봉장이었다. 그의 부친은 태고종의 대처승이었다. 처음에는 향촌동에 절이 있었다. 통인사(通印寺)였다. 그뒤 절을 수성못 입구로 옮기고 신축하였다. 나를 비롯한 후배들은 통인사에 드나들며 초하루 보름에 제를 올리면 국수를 얻어먹곤 했다.

아버지는 보통 키의 승려이셨고, 어머니는 코가 오뎅하고 얇전하고 착한 분이셨다. 형님 두 분과 누님, 남동생 둘이 있었다. 바로 밑 동생이 월남전에 갔다 와서 성격이 달라졌다고 걱정하였다. 월남 갔다 온 동생이 분신을 하였었다. 여정남도 불을 켜다가 화상을 입었다. 그 동생은 경북대 의대병원에서 치료하여 겨우

소생하게 되었다. 막내동생이 문제라고 걱정했다. 사고뭉치라고 했다. 분신을 기도했던 동생은 그뒤 승려가 되었다. 화상 입은 얼굴과 손은 말이 아니었다.

여정남은 64년 한일회담 반대투쟁으로 제적되어 군대에 갔다 왔다. 69년 3선개헌 반대 투쟁 때 경북대 투쟁을 뒤에서 지휘했다. 71년 4월 정진회 반공법 사건으로 김성희, 이현세, 정만기, 정욱표, 여석동과 함께 옥고를 치렀다. 월남파병을 용병이라고 선언문에 쓴 것이 반공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72년 12월 임구호, 임규영, 이한용과 함께 유신쿠데타 후 포고령 위반으로 구속되었었다.

여정남은 수영을 잘했다. 후배들과 수영장에 가면 여정남 대 후배가 되어 물에 잡아넣기를 하면 우리가 늘 딸렸었다. 내가 결핵 걸린 것을 안 뒤로부터는 나에게는 술을 권하지 않으면서 자꾸 안주만 먹으라고 닭달을 했다. 운동자금이 모자라면 자기 집 절에 있는 초를 내다 팔아서 보태주곤 했다. 내 인생에서 여정남은 잊을 수 없다. 나는 여정남을 그리워한다.

그리운 님

그대

그리운

그리운 님아

목이 길어서 그리운 님아

예쁜 눈
우뚱한 코
훤친한 키
늘씬한 몸매

그대는 나의 사랑
나의 천사

그대가 간 가지밭길
천길만길 낭떠러지
빙글빙글 돌다 다시 떨어져도
따라가고 싶은 사랑의 길

그대는 그대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그대는 진달래
온 산천에 흐드러지게 피어나

고운님 맞이하고

그대는 먹구름
비가 되어 산천초목을 적셔주고

그대는 태풍

이 세상의 더러운 것을 말끔히 날려 보내고

그리하여

그대는 눈이 되어

세상을 하얗게 덮어주고

우리 머무르는 곳 진흙탕 속일지라도

그대의 사랑 받고

그대의 정성 받고

그대의 꿈을 받아

하얀 초가삼간을 짓고 싶어라.

아 사랑하는 님

나의 영원한 님

영원

영원

전국민주청년학생총연맹

74년 1월 8일 대통령 긴급조치 1호가 발동되었다. 개헌청원 서명운동 저지를 위한 발작의 신호탄이었다. 여정남 선배가 서울을 다녀온 뒤 서울과 연락선을 갖기로 하였다는 얘기와 서울에서

사람이 온다는 얘기를 들었다.

74년 2월 초 서울대에서 유인태, 김재근, 전홍표가 와서 함께 달성군 강창에 갔다. 그날 저녁 민물매운탕을 먹으면서 반유신 투쟁에 연대하기로 했다. 여정남, 이강철, 정화영, 임규영, 황철식과 함께 1박했다. 특히 국가보안법 문제가 있으니 전국적 명칭은 쓰지 않기로 하였다. 각 대학마다 자체의 명칭을 쓰기로 하였다. 박정희는 전국적 연대 문제에 대해 국가보안법을 적용하여 가혹한 탄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우려되었던 것이다. 김재근은 대구 출신으로 서울대 상대 경제학과 4학년이었다. 형님이 경찰 고위직에 있다고 하였다.

달성군 강창 모임은 전국적 연결망의 시작이었다. 서울대가 서울·강원·충청 등 중부지역을 맡고, 경북대가 영남지역을, 전남대가 호남지역을 맡는 역할 분담 얘기가 진행됐다. 연락선은 서울대·경북대·전남대가 대전에서 만나 정보를 교환하기로 하였다. 강창은 금호강이 대구를 거쳐 내려오는 지점으로 곧 낙동강과 접하게 되는 곳이다. 강창 나룻터의 물은 오염되어 시커멓게 변해 있었다. 그 더러운 물에서도 강태공은 붕어를 낚아 올리고 있었다.

강창 모임 후 여정남은 대구에는 거의 없었다. 혹시 내려오면 이강철과 셋이 만나거나, 임규영과 셋이 만나곤 했다. 이강철은 그해 졸업했기 때문에 학내 묶은 대중 내 책임 하에 전개되었다.

74년 2월 말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 나는 부산대 김재규와의 약속 때문에 장례식에 갈 수 없었다. 김재규와 부산대 정문 앞, 서면 로타리, 부산역 앞 등에서 만나 유신반대투쟁에 함께 하

기로 했다.

74년 3월 학교가 개학한 뒤 나는 준비관계로 바빠졌다. 임규영으로부터 대전에서 연락선으로부터 접한 상황을 들었다. 서울에서 황인성, 광주에서 윤한봉이 온다고 하였다. 3월 초에 임규영, 황철식, 이광하, 장성백 등을 만나 3월투쟁을 다져 나갔다.

74년 3월 20일 저녁 성당못 주변 식당에서 황철식, 이광하, 장성백 등 후배들과 만나 내일(3.21) 있을 데모를 최종 점검하고 선언문, 현수막, 구호를 준비했다. 74년 3월 나는 여정남으로부터 경북대가 선도투쟁을 할 것을 권유받았다. 준비하겠다고 대답했다.

3월 21일 며칠 전이었다. 나는 수성동 임구호 집을 찾아갔다. 두 달만의 만남인 것 같았다. 3월 21일 데모를 한다는 것을 전했다. 임구호는 반대 논리를 폈다. 임구호와 나는 대륜고등학교 동기이다. 고등학교에서 한 반을 한 적도 있었다. 경북대에 입학하여서도 같이 투쟁했다. 정사회는 임구호가 먼저 가입했다. 73년 11월 5일 투쟁 이후 우리는 거의 노출되어 견제가 곳곳에서 나타났다. 11·5 투쟁은 수사기관에 전혀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되었다.

3·21투쟁을 위한 준비가 다 되었다. 10시. 말은 바대로 분담하여 유인물을 살포하고 구호를 외치고 하였으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작년 시위와는 차이가 있음을 직감했다. 나는 미리 대비해 두었던 비산동 은신처로 돌아갔다. 임규영을 만나 다시 준비하기로 하였다. 검거선풍이 시작되었다.

3월 28일 경 임규영이 중앙정보부 요원과 함께 은신처로 온 것이다. 임규영은 이승룡과 함께 만나는 과정에서 체포되어 바로

오게 되었다고 하였다. 임규영은 이 부분에 대해 늘 미안하다고 한다. 이승룡은 11·5투쟁에서는 열성적이었다. 그후 수사기관과 연계된 것 같다. 1978년 내가 교도소에 있을 때 이승룡은 경북대 뒷산에서 자살하였다고 한다. 의문사라고 하여 조사된 바도 있다.

나는 그 뒤 임규영에게 이승룡과의 선을 자르라고 부탁했다. 이승룡은 임규영은 못 만나고 다른 후배들과 만났다. 이승룡은 74년 3월투쟁의 모든 것을 수사기관에 알렸던 것이다. 프락치 역할한 것을 의문사 조사과정에서 확인하게 되었다. 이승룡, 그는 죽었다. 자괴심에 의한 자살인지 정보기관에 의한 타살인지, 그것은 지금으로선 알지 못한다. 그럴 수 있는 상황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역사의 비극이었다. 유신정권의 비극적 상황의 소산일 뿐이다. 명복을 빈다.

고문 · 고문 · 고문

74년 3월 말 경 중앙정보부에 체포된 뒤 다음 날 잡혀와 있던 임규영, 황철식, 이광하, 장성백, 강기룡, 유진숙, 김진규, 윤규한, 조태수, 김시형, 이승룡과 함께 중앙정보부 차에 실려 서울구치소로 가게 되었다. 다음 날부터 수사가 진행되었다. 대구에서 먼저 체포되었던 후배들의 진술을 시인하는 상황이었다. 반유신 투쟁을 각오하고 시작한 것이라서 별로 두려움이 없었다.

4월 3일 긴급조치 4호가 발동된 뒤부터는 태도가 달라졌다. 조사의 강도가 높아졌다. 윗선을 대라는 것이었다. 나는 이용택 6국장이 있던 중앙정보부 6국에서 조사받았다. 정보부와 경찰 혼

합팀은 인간이 아니었다. 자기를 뜻대로 되지 않으면 침대 마후라로 마구 구타했다. 엉덩이는 시커멓게 멍들었고, 등은 구타를 당해 멍든 줄이 등을 덮었다.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다. 새벽이면 등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잠을 잘 수가 없었다. 쪼그리고 앉아 등을 으르면 아픔이 좀 덜한 것 같았다.

중앙정보부에서 고문을 받다가 구치소로 돌아가는 날은 사는 것 같았다. 중앙정보부에 불려가는 날이면 반 죽는 날이었다. 일주일 의자에 앉혀놓고 잠을 재우지 않았다. 발이 퉁퉁 부어올라 걷는 감각이 없어졌다. 의식도 몽롱해졌다. 감각기능, 의식기능이 상실된 것이다.

중앙정보부가 작성한 대로 손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는 무의식 상태였다. 하루는 등을 하도 구타하기에 시멘트 바닥에 엎드려 버렸다. 죽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구타를 중단하는 것이었다. 수갑을 며칠씩 계속 차고 있으니 손목은 피가 나고 시커멓게 멍들어졌다.

나는 그때 결핵이 심했었다. 중앙정보부 놈들은 X-ray 검진을 하고 난 후 나에게 마스크를 씌웠다. 기침이 계속 나왔다. 재수없게 결핵 걸린 놈을 취조한다고 생각한 모양이었다. 나를 취조할 때는 중앙정보부 놈들도 마스크를 쓰고 했다. 모진 고문을 받으면서도 나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함구하기로 결심했다.

첫째, 선배들에 대한 것이었다. 여정남 선배를 보호하기 위해, 선을 자르기 위해 여정남 부분은 절대로 얘기하지 않았다. 이 부분은 공소장에 먼저 기재해 놓고 사후에 맞추느라고 검찰 진술 조서를 작성했던 것이다. 인혁당 선배들에 대해서도 물론 함구했

다. 중앙정보부 지하 대기실에서 하재완 선생을 만났다. 서로 모른 척했다. 하재완 선생은 나에게 사인을 했다. 손바닥에 X자 표시를 했다. 나는 알았다는 사인을 보냈다.

둘째, 여학생에 관한 것이었다. 유진숙과 같은 차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로 올라가면서 유진숙, 나 모두 모른 척했다. 혹시라도 저놈들이 눈치를 챌까봐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무언의 약속은 계속 지켜져서 중앙정보부 수사과정에서도 드러나지 않았다. 여학생 이름이 거론되지 않은 관계로 유진숙은 석 달만에 기소유예로 풀려나게 되었다. 유진숙은 지방에선 유일하게 구속된 여학생이었다.

서울구치소는 4월 중순 이후부터는 구치소 전체가 긴급조치였다. 한 방 건너 한 방이 노란딱지가 붙어있는 긴급조치 위반자들이었다. 친구 임구호가 구속된 것을 안 것도 공소장을 받아보고 난 뒤였다. 임구호와 내가 단 둘이 만난 것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가. 중앙정보부나 경찰 조사에서 한 번도 조사받은 적이 없는 사실이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었으니 말이다.

긴급조치로 수감된 민주인사가 이렇게 많다 보니 서울구치소도 누가 누구와 공범관계인지 알 수 없었을 것이다. 나는 중앙정보부로 조사받으러 갈 때 여정남 선배를 같은 차 안 바로 옆에서 만났다. 여정남 선배는 너무나 지독하게 고문을 받아서 정신이 없다고 하였다. 제 정신이 아닌 듯 실성한 사람같았다. 언제 어디서 체포되었느냐고 물었더니, 4월 16일 서울 어느 초등학교 정문 앞 후배와의 약속 장소였다고 하였다.

중앙정보부는 공소장을 먼저 작성하여 놓고 검찰 심문조사

를 작성하였다. 여정남에게서 사회주의 교양을 받고 그에 동조하였다고 반공법을 적용하였다. 서울구치소에서 강철선 검사에게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였더니, 여정남 선배에게서 쪽지를 받아가지고 왔다. 민주사회주의를 얘기하였다는 쪽지였다. 민주사회주의라면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생각하여 인정하여 주었다.

강철선 검사는 나와 단 둘이 있을 때 자기도 유신헌법을 반대한다고 하였다. 저런 검사가 있을까 생각했다. 비상보통군법회의, 비상고등군법회의의 재판은 형식적이었다. 박정희 독재정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중앙정보부가 총지휘하고, 군부가 앞잡이가 되고, 검찰은 실무자가 되어 청와대 박정희의 조종에 따라 꼭두각시 놀음을 하고 있었다.

민청학련과 인혁당을 통합심리하다가 분리심리하기도 하는 등 저놈들 입맛대로 하였다. 나는 1심에서 징역 20년 자격정지 15년을 선고받았다. 장관 확인과정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되었다. 이강철, 임규영도 같이 감형되었다.

74년 가을 전국 대학에서는 반유신테모가 격렬해졌다. 안양 교도소로 이감된 뒤 상고 취하하는 쪽으로 긴급조치자들의 의사가 형성되어 가고 있었다. 대부분의 학생이 상고를 취하하였다. 나는 임규영과 함께 상고포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다. 여정남 선배, 인혁당 선생들이 사형언도를 받은 것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가 없었다. 같이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다.

1975년 2월 17일 우리는 석방되었다. 2월 12일 국민투표란 것을 실시하여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하면서 석방시킨 것이다. 민청학련 부분에선 졸업생은 제외한다면서 이강철을 석방

시키지 않았다. 여정남 선배와 인혁당의 친구 임구호, 인혁당 선생들은 남겨둔 채 교도소 문을 나섰던 것이다. 임규영과 나는 상고중이어서 구속집행정지로 출소하게 되었다. 나는 임규영과 함께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하여 바로 서울구치소로 달려갔다. 그러나 면회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재완 선생 사모님 이영교 여사를 구치소 앞에서 만났다. 사(死)자가 있어서 큰일이라며 걱정을 하셨다. 걱정 말라고 하였지만,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다.

인혁당

4·19혁명 직후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드높은 때였다. 12년 동안 이승만 독재정권 아래에서 신음하던 모든 세력들이 민주주의와 민족통일에 대해 다양한 견해와 요구를 나타냈다. 이승만 정권은 전쟁을 통한 통일을 주장했다. 소위 북진통일론이다. 6·25라는 민족상잔의 전쟁을 거치면서 우리는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가. 전쟁을 통한 통일은 민족의 파멸을 가져온다는 교훈을 얻은 것 아닌가. 전쟁이 없는 통일을 원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승만 정권은 전쟁이 없는 통일, 평화통일을 주장하면 탄압을 가했다.

4·19 직후 혁신계는 평화통일이란 대의로 단결했다. 대구에는 혁신계 단체인 교원노조, 피학살유족회, 민통련, 민자통, 민민청 등이 있었다. 특히 민족민주청년동맹(민민청)의 청년운동이 활발했다. 민민청 위원장에 서도원, 간사장(사무총장)에 도예종, 총무에 송상진이었다. 민족자주평화통일협의회(민자통)는 정당·

사회단체가 통일전선을 형성한 것이었다. 대구 사람들이 중심이 되었다 한다. 민자통은 지금까지 명맥을 유지하고 있다.

5·16쿠데타 이후 박정희는 평화통일 세력을 파괴했다. 평화통일을 주장하는 사람을 국가보안법, 반공법으로 묶어 처벌했다. 서도원 선생도 5·16 후에 구속되었다. 도예종 선생은 피신했다.

미국은 동북아에서 냉전체제 유지를 위해 36년간 우리나라를 억압했던 일본과의 국교를 맺도록 강압하고 있었다. 박정희 정권이 일본과의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추진하자 국민들의 반대투쟁이 격렬하게 일어났다. 정당, 사회단체, 학생 등 전 국민이 한일회담 반대투쟁에 참여했다. 64년 3·24, 6·3투쟁을 도예종 선생이 배후에서 지도했다고 하여 1차 인혁당 사건을 일으켰다. 도예종 선생이 서울에서 청년 학생들과 한일회담 반대투쟁에 참여한 것이 발단이였다.

69년 3선거헌 반대투쟁시 나는 유한중 선생을 만났었다. 그분에게서 김순덕 변호사를 소개받아 변호사 면담을 한 적이 있었다. 대구에 계신 진보적 민주인사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3선거헌 반대투쟁에 참여했다.

1971년 3월 민주수호국민협의회가 결성되었다.(명동 대성빌딩)

공동대표: 천관우(언론인) 이병린(변호사) 김재준(한신대총장) 함석헌

사무처장: 김승균

운영위원(12명): 김정례(전 보사부장관) 계훈제(민족운동가)
김승균(사무처장) 이호철(소설가) 김순경(의

사) 천관우 김재준 함석헌 이병린 등

1971년 4월 22일 민주수호경북협의회가 대구 현대예식장에서 결성식을 가졌다. 사무실은 대구백화점 신관 7층(717호)에 두었다.

공동대표: 최해청(청구대학장) 박삼세(전 경북대 교수) 유한중(재야대표) 주병환(전 신민당 국회의원) 김순덕(변호사)

총무위원장: 강창덕(전 매일신문 기자)

선전위원장 겸 대변인: 이재문(전 민족일보 기자)

청년위원장: 정만진(대구대 4·19 학생운동 주도)

운영위원: 김종도(대구지역 민주노조운동 대표) 이백희(전 대구시장) 김호일(전 대구일보 편집국장) 서도원(전 청구대 강사) 도예중(전 대구대 강사) 송상진(전 교사) 하재완(전 양조장 경영) 나경일(제일모직 노조운동) 백정호(학원강사) 우종수(한의원) 이태환(전 수리조합 직원) 강창덕 이재문 정만진 여정남 임구호

경북협의회는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독재에 대항하여 투쟁하고, 민주주의와 민중의 역량을 강화하는데 선봉이 될 것을 다짐했다.

경북·대구 지역의 진보적 민주인사들은 4·19 이후부터 평

화통일운동을 주도했다. 외세에 끌려다니는 정부를 규탄하고 외세에 대해 자주적 입장에서 호혜평등을 실천하려고 하였다. 또한 박정희 폭압정권에 맞서 반독재 민주주의 투쟁을 전개하였다. 민주주의와 민족자주, 평화통일을 이루려는 민주인사라면 당연히 유신헌법 반대투쟁에 참여해야 하지 않겠는가.

인혁당 선생들은 영구집권을 꿈꾸며 국민을 수탈하고 탄압하는 박정희 군부세력을 반대하고 몰아내는 일에 당연히 참여했다. 유신반대 투쟁에 청년 학생이 투쟁대열의 중심에 서고, 윤보선을 비롯한 정치인, 지학순 주교, 박형규 목사를 비롯한 종교계, 진보적 민주인사, 각 계층이 참여했다. 이러한 반독재 민주화 투쟁과정에서 민청학련 학생운동이 발생한 것이다. 윤보선 전 대통령이, 지학순 주교가 자금을 지원한 것이다. 제 세력이 반독재 반유신 민주화 투쟁대열에 하나가 된 것이다.

서도원 선생을 비롯한 인혁계 진보적 민주인사들은 모두가 다 투쟁경력이 있는 분들이다. 아니 역량을 갖고 있는 인사이다. 현실정치에선 후선에 있었으나 민족 민주운동에선 다 아는 민주인사였다. 여정남을 앞세워 3선개헌 반대투쟁을 지도하고 반유신 투쟁을 위해 여정남을 서울로 보낸 것이다. 서울에 있는 선생들은 여정남을 보호하고 지도한 것이다. 대구지역 민주인사들은 이렇게 4·19 이후부터 민주, 민족자주, 평화통일운동을 전개하여 왔다.

인혁당은 없었다. 당이라면 당의 강령, 목적과 조직체계가 있어야 한다. 인혁당은 살인적 고문에 의해 조작되었다. 대구나 서울에서 전국적으로 진보적 민주인사들의 연계는 늘 있어 왔다.

민주인사는 민주인사대로, 학생은 학생대로 전국적으로 연결된다. 학생은 전국 학생토론회를 통해서 연결되어 왔다.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면 서울이고 지방이고 당연히 제 세력들이 역량에 따라 대응하게 되어 있다. 당시 상황과 능력에 따라, 또 정국을 인식하는 태도에 따라 대응하게 되는 것이다.

인혁당 선생들도 그런 입장에서 반독재 민주화 투쟁에 나선 것이다. 꼭 단체의 이름을 걸고 투쟁하는 것만이 아니다. 각자의 입장과 처지에 따라 참여하는 것이다. 인혁당에 관계된 선생들의 투쟁경력은 다양하다. 민주주의와 평화통일, 민족 자주적 입장에서서 해오신 분들이다. 노동운동 등 각자가 선 위치에 따라 사회운동을 해오신 분들이다. 그 분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 반외세 민족자주의 길, 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열정이 확고했다. 그 리하여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끊임없이 모색하였다.

여정남과 인혁당 선배들의 사형집행

75년 2월 17일 석방된 후 전정호와 함께 학내 투쟁에 대해 상의했다. 박명규를 중심으로 싸움이 진행되고 있었다.

75년 4월 8일은 민청학련사건 대법원 선고날이다. 임규영과 나는 구속집행정지 상태라서 4월 8일에 다시 경찰서에 구금되었다. 75년 4월 9일 안양교도소를 향해 경찰관과 함께 가는 중이었다. 추풍령을 넘기 전 고속버스 안에서 사형집행 소식을 들었다. 하늘이 무너졌다. 몸서리가 쳐졌다. 이렇게 포악무도한 놈들이 있을까. 4월 9일 안양교도소 감방은 몹시 추웠다. 우리는 기결수



▲ 1975년 4월 8일의 민청학련·안혁당 사건 대법원 공판 모습

가 되었다고 하여 머리를 깎았다. 4월 10일 형집행정지로 다시 석방되었다. 안양교도소에서 하룻밤을 지냈던 것이다.

4월 8일 10시 대법원에서 선고한지 18시간만인 새벽 5시부터 형이 집행되었다. 사형을 당한 것이다. 교수형을 당한 것이다. 사법살인을 당한 것이다. 교도소에 들어간 뒤 가족을 한번도 면회하지 못하고 저 못된 박정희와 포악한 놈들에 의해 세상을 떠난 것이다. 박정희와 포악한 일당들은 사형집행 뒤 고문 사실이 드러날까 봐 시신을 가족에게 넘겨주지 않고 강제로 화장시키기까지 했다. 영결미사를 드리려는 가족과 종교계의 염원도 뿌리치고 화장시켰던 것이다. 세상이 들끓었다. 세계가 분노했다.

박정희는 대구지역의 진보적 민주인사들에게 왜 그토록 가혹하게 대했을까?

첫째, 박정희는 자기의 고향에서 비판세력이 강성하다는데 대해 불쾌하고 불안했다. 다른 지역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둘째, 장기집권을 통해 권력의 정당성을 상실한 유신정권은 권력의 생존을 위해 사건을 왜곡 조작하여 반유신 세력의 결집을 붕괴시키려 했다.

셋째, 73년 11월 5일 경북대 반유신 가두투쟁을 3선개헌 반대투쟁, 한일회담 반대투쟁 등 전국적인 투쟁의 연장선으로 파악하고 반유신 투쟁의 중심을 와해시키려 했다.

박정희는 왜 그렇게도 급하게 인혁당 인사들은 처형시켰을까?

첫째, 박정희는 쿠데타를 일으켜 반대세력을 차단했다. 또한 굴욕적인 한일회담을 통해 민족을 팔아먹었다. 3선개헌을 통해 집권연장을 획책하고 유신 쿠데타를 일으켜 영구집권을 획책했다.

둘째,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한계로 인해 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렀다. 72년 8·3조치를 통해 민중수탈정책을 자행했다. 이에 대한 국민적 저항에 두려움을 느꼈다.

셋째, 김대중 납치사건으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박정희와 그의 중앙정보부가 지탄의 대상이 되었다.

넷째, 월남이 패망했다. 이러한 불안을 이용하여 독재정권을 연장하려고 하였다.

다섯째, 반유신 반독재 투쟁전선에 청년 학생, 언론인, 종교인, 정치인 등 광범위한 세력의 결집에 두려움을 느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고문 조작을 통해 인혁당을 만들었다. 인혁당을 통

해 저항세력을 잠재우려 전 세계에서 유례없이 사형을 집행한 것이다. 공포정치 폭압정치를 자행한 것이다.

다시 구속되고

엠네스티 한국본부를 중심으로 학생운동 출신들이 노동현장으로 들어가기 위한 교육이 시행되고 있었다. 나는 임규영을 만나 고향에서 결핵 치료를 받은 뒤 노동기술 교육을 받기로 하였다. 임규영은 경북 영주에서 자동차 정비교육을 받기로 하였다.

1976년 8월, 나는 고향 동네에서 경찰 앞잡이의 교묘한 수법에 걸려 싸움을 하게 되었다. 그 앞잡이는 나와 관계가 없는 말을 하여 이간질시켜 어떤 사람이 캄캄한 밤에 칼을 들고 오게 만들었다. 이 싸움 때문에 나는 구속되었다. 지서 순경들은 이 싸움이 있기 전에 정화영이 곧 구속될 것이라고 하였다. 시골 지서에는 나를 감시하는 형사가 있었던 모양이다. 지서에서 방위근무를 하던 후배의 뒷얘기다.

상주경찰서 감방에서 유언비어를 퍼뜨렸다고 긴급조치를 적용하였다. 감방의 다른 죄수를 매수하여 조작한 것이다. 3년형을 선고받았다. 억울했다. 대구교도소에서 3년형을 마쳤다. 그러나 석방되지 않았다. 민청학련의 형집행정지가 취소되었다. 다시 민청학련의 잔여형기 14년을 살기 시작했다.

대구교도소에는 특별사동이 있다. 0.75평 감방이 70여 개 있다. 주로 북에서 남과되어온 첩보원이나 반공법,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이 수감되어 있다. 여기에 긴급조치범들도 들어오게 된다.

나는 국가보안법, 반공법, 내란예비음모, 긴급조치위반 등 특별사동에 들어올 죄목이 4개나 되니 당연한 코스가 아닌가.

70년대 제일교포 학생간첩단 사건으로 들어온 서승, 명동성당 학생사건으로 들어온 최열, 강기종, 김용석을 만났다. 뒤에는 광주의 윤한봉이 이감 와서 다시 만나게 되었다. 장기표, 이부영 선배도 대구교도소 감옥 동기이다.

북에서 온 분들의 역할은 다양했다. 연락책으로 왔다가 체포된 사람, 남파되어 가족과 접선하다가 신고로 체포된 사람도 있었다. 총각으로 넘어와서 체포되어 20년 이상 된 사람도 여럿 있었다. 나는 그들을 총각대장이라고 놀렸다. 북에 가족을 둔 사람은 면회가 있을 수 없었으니 늘 외로운 사람이었다. 가족이 있다 해도 면회 오는 사람이 드물었다. 그러다보니 팬티 런닝셔츠 하나 넣어 줄 사람이 없었다. 서승은 제일교포라서 유복한 편이었다. 우리는 서승과 힘을 합쳐 영치물도 나누어 주고, 비누, 치약 등 세면도구 등을 사서 각방으로 분배하여 넣어주기도 하였다. 식당에서 튀김이나 짜장면을 구매하여 온 사동이 나눠 먹었다.

특별사동 위층에는 청소하는 기결수들이 있는데, 이들은 양말, 팬티, 런닝셔츠 등 내의가 풍부한 편이어서 한번 입은 것을 세탁하지 않고 창 밖으로 내버리곤 하였다. 북에서 온 분들은 내버린 내의를 운동시간에 교도관 몰래 주워다 입었다. 전향하지 않으면 계속 독방에 갇혀 있어야만 했다. 자기 사상을 지키려는 싸움은 처절한 것 같았다. 이 과정에서 전향공작으로 폭행당해 죽었다고 하였다. 작은 독방에 갇힌 죄수들의 운동시간은 하루 30분뿐이었다. 사람을 시들게 만들어 죽음에 이르게 하는 연습장이었다.

남민전, 박정희의 죽음

79년 4월 경 나는 마산교도소로 이감되었다. 교도소에는 광주에서 이감 온 한국의대 선경식이 있었다. 명동성당 학생사건으로 4년 동안 징역을 살고 있었다.

옆 독방에는 월남전에서 월남 수녀를 강간하고 살해한 파월병사가 무기징역을 살고 있었다. 정신이상이 되어 특별감방에 있었다. 매일 아메리카 징역을 산다고 소리쳤다. 근혜, 근영, 지만이를 욕하고 있었다. 그 무기수는 박정희와 미국 때문에 월남전에 가게 되어 이렇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외세 반독재를 몸으로 느끼는 무기수.

79년 10월 중순 큰 사건이 터졌다고 가깝게 지내던 교도관이 알려주었다. 무슨 사건이냐고 물었더니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사건이라고 하였다. 신문을 보여 달라고 하였더니 살짝 가지고 왔다. 이재문, 안재구 선생 등등 아는 사람이 많지 않은가. 나는 그들이 투쟁대오를 단단히 꾸렸다고 생각했다. 박정희에 의해 죽임당한 인혁당 선배들을 생각하면 무슨 투쟁을 못하겠는가.

79년 10월 26일 박정희가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에 의해 살해되었다는 뉴스가 들어왔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고 생각했다. 인과응보란 바로 이것이다. 18년 동안 권력의 유지를 위해 얼마나 포악한 짓을 하였던가.

대구교도소로 다시 이감되었다. 그해 말 다시 대전교도소로 이감되었다. 이강철, 임구호, 장영달, 나 넷이서 만났다. 이재형 선배, 정만진 선배, 전재권 선생, 이태환 선생과 같이 지낼 수 있

었다.

81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한화갑, 김옥두, 김홍일, 이협, 전대열, 함윤식 등도 들어와 교도소 생활을 같이 했다. 황인오, 권운상, 박종렬, 권진관, 양관수도 있었다. 박종렬은 내가 교도소 한 번 있을 때 두 번 들어왔다. 충남대학생 선재규, 선병렬 등 8명이 들어왔다. 교도소 긴급조치 사동이 해방구가 된 듯하였다.

대전교도소에도 북에서 온 첩보원 사동이 있다. 그 사동은 얼마나 지독하고 엄하게 대했는지 통방소리 하나 들리지 않았다. 여기서 우리는 터놓고 통방했다. 특별사동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마음 놓고 통방하는 소리가 들렸다. 들개를 심어서 먹기도 하고, 상추를 심어서 먹기도 하였다.

81년 8월 15일 이강철, 장영달과 나는 구속집행정지로 석방되었다. 이강철은 7년 반, 장영달은 7년, 나는 6년의 징역을 살았다. 석방된다는 소식을 듣고 인혁당 선배들을 두고 나간다고 생각하니 설움이 복받쳤다. 나는 서럽게 영영 울었다. 6년 동안 살면서 경제학 공부를 열심히 했다. 책 구입이 넉넉지 못했던 나는 동료들에게 좋은 책이 들어오면 빌려 밤새워 읽기도 하였다.

독방에서 혼자 있으면 공상이 가득하다. 기와집을 지었다 부수고 다시 새 기와집을 짓기도 하였다. 여정남과 인혁당 선배들을 생각하면 울분이 솟아나곤 했다. 나는 포악한 박정희를 수십 번이나 죽였다. 몸을 땅에 파묻고 목만 내어 놓은 상태에서 칼로 목을 치기도 하고 권총으로 머리를 두드리며 죽이는 상상을 몇 번이나 하였던가. 논둑을 날아오르는 꿈을 몇 번이나 꾸었던가. 어떻게 하면 저 포악한 박정희를 죽일 수 있겠는가. 그 고문하던

놈을, 고문하던 중앙정보부를 파괴하는 방법이 없을까...

석방된 뒤 이강철은 대구에서 테니스장을 운영했다. 나는 테니스장에 자주 가곤 했다. 경찰이 매일 집에 와서 동정을 살펴 움직일 수가 없었다. 6년이란 세월이 세상이 많이 변해 있었다. 버스값도 몰랐다. 임규영과 황철식은 남민전으로 구속되어 있었다.

82년 나는 서울로 올라왔다. 83년부터 김승균 선배의 도움으로 일월서각에 있게 되었다. 김승균 선배는 인혁당 선배들과 함께 투쟁한 분이다. 나는 장영달, 배기선, 송진섭과 만나 반합법단체를 만들기로 했다. 민청협 팀과 합동으로 83년 3월부터 비밀리에 준비모임을 가졌다. 정화영 너 왜 민청련을 만들려 하느냐는 의심과 항의를 받아가면서 말이다.

83년 9월 민주화운동청년연합(민청련)을 결성하였다. 나는 민청련을 토대로 전국적인 청년단체를 만든 뒤, 진보적 대중정당을 전환하는 희망을 가지고 있었다.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항할 연합단체를 만드는 구상도 하였다. 민청련의 기관지 「민주화의 길」도 나오게 되어 우리 목소리를 내게 된 것이 무척이나 기뻐다.

[자료]

반독재구국선언

4월민주혁명 제11주년 기념 학술토론대회를 마치면서 용감하고 슬기로운 선배들의 피와 눈물로 이룩되었던 4월 민주혁명 열한 돌을 맞이하려는 오늘, 또 다시 그 때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들의 젊은 가슴이 술렁대야 한다는 것은 이 어찌된 역사의 아이러니란 말이나. 우리들의 영광스런 선배들이 목숨 바쳐 쟁취한 민주주의의 싹이 하루아침 한강변의 총성으로 무참히 짓밟히고, 반민주적이고 반민족적인 군사독재는 이 땅을 다시 한 번 공포, 빈곤, 부패, 역설이 소용돌이치는 암흑천지로 만들고 말았다.

4월 민주혁명의 민중의 에너기가 그 권리 회복의 수단으로 표시한 민주행동을 국가질서 문란이란 누명을 씌워 무참히 짓밟고, 민족자주를 지키려는 전 국민적 한일협정 반대의사를 무시하고 저희들의 정권유지의 한 방편으로써 매국적으로 체결하여 이 땅을 다시 한번 일본 군국주의의 식민지로 전락시켰을 뿐 아니라, 파탄에 직면한 민족경제를 민족의 단합된 자주적 총력으로써 재건하려 하지 않고 무절제한 외국차관 도입으로써 이 나라를 경제적 국제식민지화하고 말았으며, 다시 구제할 수 없는 악순환만 거듭하게 하였다.

비등하는 국내외의 반대여론을 무시하고 개값도 안되는 헐값으로 귀중한 우리 젊은이의 생명을 용병이란 오욕에 찬 이름을 들어가며 월남에 보내어 저희들 정권유지의 도구로 삼았던 것이다. 어제까지 집 한 칸 없던 자들이 권력의 주변에 들어서기만 하면 하루아침에 수십 수백억의 거부가 되고, 속칭 도둑촌의 영화를 누리게 되어 부정과 부패는 이 나라의 심장부로부터 말초에까지 보편화되었고, 권력층, 무이상, 무도덕과 그로 말미암은 향락주의, 찰나주의는 정여인 사건으로 집약되었고, 우리 선조 전래의 미풍양속, 고유문화는 헌신짝처럼 짓밟히고 음란한 양키 섹스 문화로 탈바꿈하고 말았다.

일부 지배층은 무한한 부와 유례없는 향락을 누리다가 하면 대다수 국민은 빈곤과 민생고에 허덕이는 참상을 낳게 하여 국민의 불평과 불만은 날로 높아가게 되었던 것이며, 집권자들은 고도로 발달한 탄압방법을 통하여 국민들의 눈과 귀를 막고 입을 막았던 것이다. 무소불위의 중앙정보부는 국민생활의 전 분야를 감시 간섭하여 한국 전 국토를 창살없는 감옥으로 만들었으며, 언론기관에 대한 탄압, 유혹, 매수정책은 이 땅을 여론과 언론이 없는 암흑천지로 만들었던 것이다.

저희들 영구집권을 획책하여 저희들이 만든 헌법을 위배해 가며 3선개헌을 감행했던 것이며, 그것도 부족하여 전 국민을 군대식으로 묶어두려고 국가안보란 미명하에 향토예비군을 만들었고, 자유와 진리의 거점인 학원마저 명령과 복종 지배의 병영화를 위하여 국가안보와는 무관한 군사훈련을 강제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러한 현실은 머잖은 장래에 닥쳐올 전민족의 염원인 조국통일을 지연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며, 역사의 흐름에 역류하려는 웅고집은 민족사에 비참한 한 페이지를 남기게 되고 말 것이다. 한필화 오누이의 비극은 전 민족적 비극의 조그마한 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일 것이다. 조국의 평화적 민주적 통일은 이 땅에 참된 민주정권이 수립되어야만 가능한 것이다. 우리 백의민족은 역사상 유례없는 백척간두에 서 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범국민적 반독재 민주구국전선의 결성을 제의한다.

- 매국적 한·일협정을 무효화한다.
- 구국운동의 일차적인 작업으로써 공명선거 수호를 위하여 국민적 쫓기를 촉구한다.
- 학원 민주화를 전취하기 위해서 전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각성 분위기를 촉구하며, 학원병영화를 전면 반대한다.
- 조국의 민주주의를 위하여 노동자, 농민, 소시민, 양심적인 지식인, 중소기업가, 종교인들에게 요구한다. 반만년 동안 단일민족 고유문화를 지켜오고, 어떤 외침도 과감히 물리친 조국의 영광을 되살려 반외세, 반독재 전선에 총결기하라.

4월의 맑은 하늘 아래 우리의 끓는 피를 조국에 바
치자

혼탁한 거리거리에 민주주의의 청신한 물결이 넘쳐
흐르게 하자.

조국의 민주혁명 만세!

1971. 4. 7

경북대학교 정진회, 서울문리대 문우회,
서울상대 후진국사회연구회, 연세대학교 한국문제연구회,
고려대학교 현대사상연구회, 서울법대 사회법학회,
고려대학교 한맥, 부산대학교 한얼,
서울공대 산업사회연구회, 계명대학 대학토론회